

◆ 06년 6월 고1 42~46번

[42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랫동안,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심장에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우리의 영혼이 머리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였다. 프랑스의 외과의사 라 페로니는 뇌량(腦梁)이 손상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뇌와 마음 사이에 일종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고로 뇌량이 끊어진 환자는 좌뇌와 우뇌 사이에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여 우뇌에서 느낀 감정을 좌뇌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잘 익은 빨간 사과를 보고 '맛있겠다'라는 감정을 느껴서 입 안에 군침이 돌아도 '맛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 페로니는, 1741년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어 뇌량이 손상된 환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환자의 상처 부위에 물을 뿌렸더니 환자가 정신을 잃었고, 다시 이 물을 뽑아내자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실험 결과가 담겨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영혼이 기능을 발휘하는 부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과 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지금 생각해 보면 환자를 전혀 배려해 주지 않은 정말로 무식한 실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 페로니의 실험은 인간의 마음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즉 뇌 그 자체가 마음과 영혼을 구성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렵잖이나마 인식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뇌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그 기능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탄생한 것이 19세기를 풍미했던 ㉡유사 과학(類似科學) 중의 하나인 골상학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골상학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곳이 머리이므로, 머리를 구성하는 두개골의 구조를 파악하면

인간의 성격이나 정신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은 당시에는 꽤나 그럴듯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두개골을 계측한다는 의미의 두개계측학이라는 학문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골상학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독일의 의사 프란츠-조셉 갈(Franz-Joseph Gall)이다. 그는 인간의 뇌에는 약 28개의 '기관'이 있으며 이것들은 두개골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개골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살인범의 뇌에는 '살인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튀어나와 살인범을 가려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用不用說)에 의한 것으로 ㉔

따라서 이러한 두개골의 울퉁불퉁한 모양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종류의 지적 사고를 했는지 특징지어 준다고 생각한 것이다.

허무맹랑한 것같이 보이는 골상학에도 의의는 있다. 바로 인간의 뇌가 성격이나 정서, 지각, 지성 등의 근원이며, 뇌의 위치에 의해서 담당하는 정신 기능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다. 물론 뇌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뇌의 기능적 차이를 눈에 보이는 두개골의 차이에 대입했다는 것이다. 뇌의 어느 부분이 발달하든 그것이 두개골 모양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간의 정신을 조정하는 부위가 '뇌'라는 골상학의 발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골상학은 인과 관계가 부족한 결과를 주장한 점이 문제였던 것이다.

4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라 페로니의 실험 이후 뇌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 ② 뇌의 발달 정도와 두개골의 구조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 ③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된 경우, 지적·심리적·감각적 활동에 이상이 생긴다.
- ④ 18세기에 들어와서 뇌와 마음 사이에 일종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⑤ 뇌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상학이 한때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43. ㉔의 실험 과정과 결론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문제설정** : 마음과 관련된 뇌의 역할은 무엇일까?①
- ◆ **실험목표** : 뇌량이 좌뇌와 우뇌 등 뇌의 각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 본다.②
- ◆ **실험대상** : 뇌량이 손상된 환자
- ◆ **실험방법** : 상처 부위에 물을 뿌렸다가 물을 다시 뽑아낸다.③
- ◆ **실험결과** : 물을 뿌렸을 때는 의식이 없다가 물을 뽑아내자 의식이 되돌아왔다.④
- ◆ **결론** : 뇌와 인간의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⑤

4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㉔의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인 듯하지만 과학적인 인과 관계가 부족한 것
- ② 일상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과학적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것
- ③ 과학적 방법과 원리를 이용하지만 과학 발달과 관련이 없는 것
- ④ 이론의 결과가 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과학으로 판명되지 않는 것
- ⑤ 과학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

45. <보기>를 참고하여 ㉔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추리한 것은?

—<보기>—

용불용설 : 동물의 어떤 기관이든지 다른 기관보다 자주 쓰거나 계속해서 쓰게 되면 그 기관은 점점 강해지고 또한 크기도 더해 간다. 따라서 그 기관이 사용된 시간에 따라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해서 어떤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차차 그 기관은 약해지고 기능도 쇠퇴한다.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작아져 마침내는 거의 없어지고 만다.

- ① 자주 사용하는 뇌의 기관은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어, 그에 따라 두개골 역시 솟아오르거나 함몰한다는 것이다
- ② 자연은 환경에 적합하고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여 번식을 가능하게 하고, 열등한 개체는 도태시킨다는 것이다
- ③ 뇌의 여러 기관과 크기 사이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여 인간의 인지 작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어떤 기관의 크기를 수치화할 수 있다면, 그 기관이 갖는 기능의 정도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⑤ 특별히 돌출된 뇌의 부위를 관찰하여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46. 위 글의 완결성을 위해 첨가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골상학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관심
- ② 뇌의 각 부분이 담당하는 기능 분석
- ③ 라 페로니의 실험과 관련된 과학자들의 태도
- ④ 신체와 마음의 상관 관계에 대한 학계의 입장
- ⑤ 골상학 이후의 뇌에 대한 연구 동향 및 현재의 성과

◆ 02년 3월 고3 32~36번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의식은 어떤 사건의 문제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洞察)이요 의식이다. 그것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져 있는 일상적 세계의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문제점들을 꿰뚫어 보게 하며, 문제되어야 할 사건들이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건들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파악하게 된다. 일상성의 세계 또는 상식의 세계는 대체로 ‘물론(勿論)의 세계’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하는 세계가 바로 물론의 세계다. “일부 일체제가 옳습니까?”라고 물을 때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한다든지, “주권 재민의 사상이 옳은 사상입니까?”라고 물으면 “물론 그렇고 말고요.”라고 대답할 때 일부 일체제와 주권 재민은 일상성의 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특별한 의심을 품지 않는다. 때때로 그 일상성의 세계는 신성시될 때도 있다. 마치 종교인에게 있어서 절대자인 신이 그러하듯이, ‘물론의 세계’와 ‘당연의 세계’도 때때로 신비의 베일로 가려져 있고, 그것 자체가 신성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감히 아무도 그것의 ㉔ 정체(正體)에 대해서 묻고자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것,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대번에 잘못된 것이거나 범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제거하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일상성의 ㉕ 횡포(橫暴)다. 이러한 일상성의 세계는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세계다. 문제될 만한 것은 대체로 가려져 있지만 혹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즉각 제거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일상성에 대해 “지당합니다.”라든지 “물론이죠.”라고 함창한다. 이런 세계에서 현상과 사건의 문제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문제 의식은 곧 일상성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의식이다. 이것은 모두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세계의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문제성의 정체와 그 실상을 밝혀 보려는 의식이다. 모두가 “물론이죠.”라고 응답할 때, “글쎄요.”라고 ㉖ 회의(懷疑)하면서 현상의 표피를 뚫고 그 내용을 살펴보려는 의식이다. 특히 일상의 관습이 완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 ‘물론’의 바탕과 내용을 파헤쳐 보려는 의식이다.

따라서, 문제 의식은 허위 의식을 폭로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㉗ 허위 의식이란 복잡한 현실을 짐짓 단순화시키고, 더럽고 잘못된 현실을 짐짓 아름답게 꾸며서 그럴듯하게 정리해 놓은 거짓된 현실 인식을 말한다. 허위 의식은 대체로 아름다운 ㉘ 수사(修辭)의 낱말들로 꾸며져 있어서 사람을 홀리거나 속인다. 속이 더럽고 부끄러울수록 허위 의식은 깨끗하고 떳떳한 낱말들을 동원한다. 자유, 발전, 행복, 정의, 평화 등을 앞세워 자유를 제한하고, 전체적 발전을 늦추며, 행복을 깨뜨리고, 정의를 흐리며, 평화를 파괴한다. 이럴 때 문제 의식이 요청된다. 문제 의식을 갖춘 사람은 정직이라는 말로 단장된 허위 의식의 거짓된 속셈을 꿰뚫어 본다. 문제 의식에 투철한 사람은 자유를 앞세우는 억압의 행태를 알아차린다. 그는 정의를 큰 소리로 외치는 불의

를 투시할 줄 안다. 그는 평화를 강조하는 폭력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

문제 의식은 지식인을 지식인답게 해 주는 일종의 ㉙ 조감(鳥瞰) 의식이며 통찰력이다. 그러기에 문제 의식이 없는 지식인은 ㉚ 와(과) 같다. 문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칭 지식인이 있다면 그는 한낱 지식 기사에 지나지 않고, 문제 의식 없이 학교에 다니는 젊은 지성이 있다면 그들은 한낱 직장 예비군에 불과하다. 문제 의식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는 지식인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뜻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체로 사람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의심한다.
- ② 문제 의식은 일상성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의식이다.
- ③ 문제 의식은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 ④ ‘물론의 세계’에서는 사건의 문제성을 꿰뚫어 보기 어렵다.
- ⑤ 허위 의식은 현실의 참모습을 단순화시키거나 왜곡시킨다.

3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좌우명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끝까지 처음처럼!
- ② 늘 깨어 있는 삶!
- ③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 ④ 인내만이 영광에 이르는 길!
- ⑤ 노력을 이기는 천재는 없다!

34. ㉙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남성들이 전통을 내세우며 여성들을 차별한다.
- ② 강대국이 세계화를 내세우며 자기 잇속을 쟁긴다.
- ③ 독재자가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비판자들을 탄압한다.
- ④ 지배 계급이 질서를 강조하며 피지배 계급을 억압한다.
- ⑤ 교통 경찰이 안전을 강조하며 법규 위반자를 단속한다.

35. ㉚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사랑이 식은 연인
- ② 융통성이 없는 학자
- ③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 ④ 사업 의욕이 없는 기업인
- ⑤ 전의(戰意)를 상실한 군인

36. ㉘~㉚의 사전적 의미를 잘못 풀이한 것은?

- ① ㉘ 정체(正體) : 사물의 본디 형체
- ② ㉙ 횡포(橫暴) :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함.
- ③ ㉚ 회의(懷疑) :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 ④ ㉘ 수사(修辭) :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밈.
- ⑤ ㉙ 조감(鳥瞰) : 높은 곳에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봄.

◆ 06년 10월 고3 42~46번

【42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신분 질서 등과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 ‘자유’ 등의 관념을 자각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얻게 된 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에로의 자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근대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던 인간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대된 것이다.

근대 이후 인간들은 이러한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인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 제1차적인 속박 대신에 새로운 ㉢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

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도피의 또 다른 심리 과정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 그에게 부여된 인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스스로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 나와 외부 세계 간의 모순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고독과 무력감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사라지게 된다. 개인적 자아를 포기해버린 자동인형이 되어 주위의 다른 자동인형과 동일하게 된 인간은 더 이상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자아의 상실이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는 부단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안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의 속성상 인간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 속박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가? 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하면서도 외부 세계와 ㉡ 합치되는 적극적인 자유의 상태는 없는가?

‘자발성’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된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외부 세계에 새롭게 ㉢ 결부시키기 때문에, 자아의 완전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극적인 자유는 개인을 고독한 존재로 만들며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 소원하게 만들고 자아를 약화시켜 끊임없는 위협을 느끼게 한다. 자발성에 바탕을 둔 적극적 자유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 내포되어 있다. 개인적 자아보다 더 높은 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의 생활의 중심이자 목적이라는 원리와 인간의 개성의 성장과 실현은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원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에 더하여 인간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질 때 근대 이후 인간을 괴롭히던 고독감과 무력감이 극복될 수 있다.

42 글쓴이가 위 글을 소개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부정적인 인간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의 인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② 근대 이후 획득한 자유를 포기하려는 현상의 원인과 그 심리 과정을 밝히고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③ 근원적 불안과 고독감을 해결하려는 근대 이후의 노력을 제시하고 운명에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하려고 하였습니다.
- ④ 고독감과 불안감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⑤ 근대 이후 나타난 부정적인 인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근대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였습니다.

43 ㉠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 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
- ②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는 태도

- ③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④ 자신의 직업에 대해 천직 의식을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자신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으로 전전하는 태도
- 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 각종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통해서 얻은 삶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태도

44 위 글로 보아,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은 근대 이전, ㉡은 근대 이후에 찾아볼 수 있다.
- ② ㉠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비해 ㉡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 ③ ㉠은 자유가 부재한 상태이고 ㉡은 자유를 포기한 상태이다.
- ④ ㉠은 안정감과 소속감, ㉡은 고독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 ⑤ ㉠은 소극적 자유, ㉡은 적극적 자유의 실현으로 해결된다.

45 <보기>는 어떤 소설의 줄거리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의미를 탐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울에서 살던 ‘나(한병태)’는 Y읍의 한 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그곳에서는 학급 반장 엄석대가 담임 선생님의 두터운 신임과 아이들의 절대적 복종을 받으며 군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석대에 대한 복종의 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현실에 대해 저항해 보지만, ‘엄석대’의 힘에 눌려 달리 대항해 볼 방도를 찾지 못한다. ‘나’는 엄석대의 폭력·위압·비행을 담임 선생님께 고발하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인식되어 배척받고 소외당한다. 결국, ‘나’는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동조하며 그의 시혜를 받게 된다. 6학년이 되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된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엄석대 체제는 몰락하게 되고, 학급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한다.

- ①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엄석대가 힘으로 아이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은 일종의 ‘권위주의적 양상’을 띤 ‘도피’에 해당한다.
- ③ 처음에 저항하던 ‘나(한병태)’는 결국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닌 ‘자동인형’으로 전락한다.
- ④ 학급 아이들이 엄석대에게 복종하는 행동은 ‘소극적 자유’가 실현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다.
- ⑤ ‘나(한병태)’의 좌절은 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외적 여건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6 ㉢~㉤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봉건질서의 붕괴로 노비들이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 ② ㉣ : 그의 생각은 내 생각과 합치되어서 일하기가 수월하다.
- ③ ㉤ : 그는 권력가와 결부하여 출세하려고 애를 썼다.
- ④ ㉠ : 나와 소원하게 지내던 그가 별안간 나를 찾아왔다.
- ⑤ ㉡ : 그의 말 속에 내포된 저의가 몹시 궁금하였다.

◆ 15 수능 B형 21~24번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히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

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초 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2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 16-6평 B형 21~24번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할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

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쫓아내거나 몰아냄.
- ②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 ③ ㉢: 걸음으로 나타냄.
- ④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⑤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 09 LEET(예비) 언어이해 5~7번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몽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그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아 왔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그는 우선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인간은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에게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비극적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키워 간다.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이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대중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게 대해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듯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른다. 자연 폭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파괴적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적 파시즘은 내·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예를 들어 나치는 도구적 이성에게 의해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자연 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5. 위 글의 '자아', '이성', '자연'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 ① 외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
- ② 나에게 다른 사람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다.
- ③ 나는 자아가 없는 내적 자연으로서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 ④ 과거에 자연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연이 아니며 자아도 아니다.
- ⑤ 내적 자연이 자아를 지배한다면, 외적 자연은 이성을 억압한다.

6.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 ②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원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다.
- ④ '자연 폭동'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권력을 강화한다.
- ⑤ 내적 자연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은 외적 자연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7. 위 글에 제시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이성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성의 비판적 활동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 ②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억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개별을 보편으로 성급하게 환원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 ③ 자연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자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성을 격하하는 자기 기만이다.
- ④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은 자연이 기계처럼 작동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가정한 허구이다.
- ⑤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비판은 '계몽'이라는 논점에서 이탈하고 있다.

◆ 09 LEET(예비) 언어이해 22~25번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시대의 공중(公衆)에게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며 사적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쟁점과 고민을 정식화(formulation)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가운데 이 시대의 특징적 경향에 의해 위협받거나 지지받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위협받는 경우든 지지받는 경우든 우리는 어떤 독특한 구조적 모순이 그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사람들이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안녕'을 경험한다.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개인적 고민이나 공적인 쟁점으로 '위기'를 경험한다. 만일 그들의 모든 가치가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공황이라는 총체적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것은 곧 '무관심'의 경험이다. 만약 그 경험이 사람들의 모든 가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냉담함이 되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소중하다고 의식하지 않지만 위협은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그것은 '불안'과 초조의 경험이며 만일 그것이 완전히 총체적인 것이라면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된다.

이 시대는 아직도 이성의 작동과 감수성의 활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불안과 무관심의 시대이다. 개인의 삶에서는 가치와 위협에 따라 정의되는 고민 대신 모호한 불안이라는 불행을 겪을 때가 많으며, 공중의 삶에서는 명백한 쟁점 대신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혼란스러운 느낌이 많다. 위협받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진술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미결정의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 과학의 문제로 정식화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에는 당시의 경제 문제가 일련의 개인적 고민인 동시에 하나의 경제적 쟁점으로 존재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이러한 논의에서 마르크스의 견해와 그의 작업에 대한 다양하고 승인되지 않은 재정식화는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고민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위협받고 있는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존중하였고, 그것을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도 분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이 두 가치를 광범위하고도 심각하게 경험했다.

그 당시야말로 정치적인 시대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위협받고 있는 가치가 가치로 널리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적인 불안이 정식화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으며, 수많은 공적인 불안과 엄청난 구조적인 중요성을 갖는 많은 결정들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 이성과 자유 등과 같은 고유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며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다. 그리고 바로 불안과 무관심이라는 이러한 조건이야말로 1950년대의 현저한 특징이다.

[A]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현저한 특징이기 때문에, 관찰자들은 이것을 정식화해야 할 문제 자체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950년대의 문제나 심지어 위기조차도 경제라는 외적인 영역으로부터 이제 개인적 삶의 질에 관련된 것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는다. 사실상 개인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아동노동이 아니라 만화책이, 빈곤이 아니라 대중여가가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사적 고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중대한 공적 쟁점이 '정신 병리학'에 입각하여 서술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대 사회의 중대한 쟁점들과 고민들을 회피하려는 애처로운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진술은 흔히 서방 사회에, 그중에서도 미국 사회에만 국한된, 따라서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무시하는 국지적이고 편협한 관심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흔히 그것은 개인의 삶을, 그 속에서 삶이 영위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제도로부터 자의적으로 분리시킨다.

따라서 사회과학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지적 과제는 이 시대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문화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과학자에게 부과하는 핵심적인 요구이다. 사회 과학이 현대라는 문화사적 시대의 공통분모가 되며 사회학적 상상력이 우리들 모두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질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제와 요구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 밀스, 「사회학적 상상력」 -

2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사회를 보는 관점을 분류하고 각 관점들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 ③ 시대의 대표적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시대의 경향을 탐구하고 있다.
- ④ 현대 사회 문제를 서술하는 대립되는 견해들을 비교하여 조화를 꾀하고 있다.
- ⑤ 사회 과학의 구체적인 탐구 방법을 비교하고 효과적인 탐구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23. 글쓴이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시대의 특징인 불안과 무관심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고민이며 쟁점이다.
- ② 1930년대에는 경제 문제가 쟁점이었으나 1950년대에는 개인적 삶의 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 ③ 1930년대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관점이 주도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 ④ 쟁점과 고민을 정신 병리학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제도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 ⑤ 사회 과학은 위협받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24. '가치'와 '위협'에 대한 위 글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존중하는 가치가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냉담함을 경험하게 된다.
- ② 무관심은 존중하는 가치를 의식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생겨난다.
- ③ 소중한 가치가 위협받는 위기는 개인의 차원이나 공중의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
- ④ 존중하는 가치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총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사람들은 공황을 경험하게 된다.
- ⑤ 존중하는 가치에 대한 의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은 안녕을 경험하게 된다.

25. [A]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 ①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이전시켜 이해하려는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 ② 개인적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공적 쟁점보다 사적 고민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③ 사적 고민을 이해하려면 사회 제도와, 그 사회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④ 공적 쟁점은 서방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사적 고민은 미국 사회에 국한된 문제이다.
- ⑤ 제도적 차원의 중대한 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적 고민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